

字書의 변천과 金文學의 관계 비교 분석*

오 제 중
(건국대학교)

1. 序 論

字書란 字形을 위주로 文字를 수록한 중국의 전통 언어학 분류법인 小學類 서적을 지칭하며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字典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字書는 漢字의 다양한 異體 字形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문자의 발전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字形의 변천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헌상에 나타난 중국 최초의 字書는 『漢書·藝文志』 小學類에 실린 『史籀篇』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字書의 기원을 後漢 시기 許慎이 편찬한 『說文解字』¹⁾로 꼽는다. 그 이유는 『史籀篇』이 비록 『說文』보다 먼저 편찬되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識字 교본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字形 구조와 本義를 파악한 『說文』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字書는 清代 황제의 명을 받들어 편찬된 『康熙字典』에 이르도록 지속되어 왔다. 이처럼 周代에서 清代에 이르는 오랜 세월을

* 이 논문은 2010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이하 모두 『說文』으로 칭한다.

거치는 동안 字書는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중 『康熙字典』은 중국은 물론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이처럼 字書는 단순한 한자 字形 수록집의 가치를 뛰어 넘어 漢字 교류와 文字學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古文字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중국 최초의 한자인 甲骨文 이래 秦始皇이 최초로 중국의 文字를 통일한 小篆까지의 漢字를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 문자인 隸書로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行書와 楷書에 이르는 漢字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바로 이러한 古文字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工具書의 하나가 바로 字書이다. 그 이유는 甲骨文과 金文 등의 고문자 字書는 전문적으로 다양한 異體 자형을 위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문자의 발전 과정은 물론 구조와 本義 파악에까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따라서 『說文』 이후의 개별 字書의 변천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범위를 제한하여 古文字 영역과 연결시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金文은 甲骨文과 더불어 古文字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靑銅器 표면에 적혀 있는 銘文을 지칭한다. 따라서 중국 文字學 연구를 위한 중요한 工具書이자 각 시대의 학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字書의 변천 과정을 통해 이것이 靑銅器와 銘文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金文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고문자 字書의 변천 과정을 살피기 위해 최초의 金文 字書로 알려져 있는 宋代 呂大臨 『考古圖釋文』의 체례와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字書와 金文學의 관계 파악을 위해 실제 體例와 字例를 이용하여 『說文古籀補』와 『金文編』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세권의 字書を 金文學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清代 이전 金文과 관련된 거의 유일한 字書가 『考古圖釋文』이며, 清代 이후로는 『說文古籀補』와 『金文編』이 현재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청동기 銘文의 수록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세 종류의 字書이지만 이들의 성격이 바로 金文 字書의 전형적인 특징과 발전 과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범위의 대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字書는 연구서의 성격 보다는 자료집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字形이 수록된 正文의 내용을 통한 저자의 편찬 의도와 학술 개념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序文과 凡例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序文의 내용 파악과 동시에 凡例와 관련 있는 구체적인 字例를 분석하여 이들 字書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과정을 거쳐 字書와 金文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최종 목표이다.

2. 金文學 字書의 변천

고대 중국의 字書는 전통 小學類 분류법인 字形, 字音, 字義를 기준으로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說文』을 대표로 하는 字形類 字書로 字形 분석을 위주로 字音과 字義를 풀이하며 許慎이 창안한 部首 檢字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는 『爾雅』를 대표로 하는 訓詁類 字書이다. 이들은 각 사물에 대한 訓詁 풀이를 위주로 하여 의미별로 漢字 또는 語彙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切韻』과 『廣韻』을 대표로 하는 韻書는 字音 분석을 위주로 音韻에 따른 배열 방식을 취하고 있다. 후일 출현한 대부분의 字書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세 부류에서 발전한 것으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字書는 字形 또는 字音을 기준으로 문자나 어휘를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字書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고 또한 역대로 무수히 많은 字書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주제 아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字書와 제한적 범위의 字書와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전통 小學類 분류법에 따른 字形, 字音, 字義의 삼분법은 일종의 廣義의 字書에 속하며 그 중에서 字形을 위주로 하는 說文類에 속하는 字書는 狹義의 字書이다. 현재 文字學에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字書는 바로 狹義에 속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金文學 字書 역시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字形類에 속하는 字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字形類 字書의 典範이 『說文』인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金文類 字書는

『說文』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說文』은 小篆을 기준으로 古文과 籀文 등의 重文이 더해져 자형을 수록하는 것 이외에 문자의 구조 분석, 本義의 파악은 물론 경우에 따라 形聲字를 이용한 字音 분석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비해 역대 金文學 字書의 경우는 주로 다양한 異體 자형을 수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考釋이나 字形 파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金文 뿐만 아니라 甲骨文 등의 기타 古文字 字書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로 이 점이 『說文』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본격적인 金文 字書가 등장하기 이전의 字書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字書의 기원

『漢書·藝文志』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字書는 周宣王 시기 太史籀가 편찬한 『史籀篇』이나 현재는 소실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容庚은 역대 字書의 탄생 역사에 대해 『漢書·藝文志』의 기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²⁾.

한서 예문지에 이르기를「한이 흥하고 마을의 선생들이 창힐, 원력, 박학 세 권의 책을 모아 육십 자를 한 장으로 삼아 모두 오십오 장의 창힐편을 지었다. 무제에 이르러 사마상여가 범장편을 지었으나 중복되는 글자가 없었다. 원제 때 황문령 사유가 급취편을 짓고, 성제 때 장작대장 이장이 원상편을 지으니 모두 창힐편의 정자이나 범장편은 이와 사뭇 달랐다. 원시에 이르러 천하에 소학에 능통한 자 수백을 모아 각자 문자를 기록하게 명하

- 2) 容庚 『金文編』, 容庚序, 27-28쪽. 『漢書藝文志』曰: 『漢興, 閭里書師合蒼頡, 爰歷, 博學三篇, 斷六十字以爲一章, 凡五十五章, 并爲蒼頡篇. 武帝時, 司馬相如作凡將篇, 無復字. 元帝時, 黃門令史游作急就篇; 成帝時, 將作大匠李長作元尚篇, 皆蒼頡中正字也. 凡將則頗有出矣. 至元始中, 徵天下通小學者以百數, 令各記字於庭中. 揚雄取其有用者, 以作訓纂篇, 順續蒼頡, 又易蒼頡中重複之字, 凡八十九章. 臣復續揚雄作十三章. 凡一百二章無復字, 六藝羣書, 所載畧備矣.』當時所作一百二章, 章六十字, 凡六千一百二十字, 無非編纂章句, 以便誦習. 觀其所云『取其有用者』, 與『六藝羣書, 所載畧備』, 非謂文字盡於此也. 卽說文所取九千三百五十三文, 亦僅足供學童諷書之用, 蓋『太史試學童能諷書九千字以上乃得爲吏』, 亦非謂文字盡於此也.]

었다. 양옹은 그 중 유용한 것을 취합해 훈찬편을 지어 창힐편의 뒤를 이으며 창힐편 중의 중복되는 글자를 바꾸니 무릇 팔십구 장에 이르렀다. 본인은 양옹의 뒤를 이어 십삼 장을 더해 중복된 문자가 없는 백이 장을 편찬했으니 육예의 여러 책들이 대략 모두 구비되어 실렸다.」당시에 지은 한 장 육십 자의 백이 장은 육천 백 이십 자로 구절로 편찬하여 읊고 익히기 편리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기서 말한「유용한 것을 취합했다」는 것과「육예의 여러 책들이 대략 모두 구비되어 실렸다」는 것은 문자가 여기서 모두 모아졌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설문이 구천 삼백 오십삼 자를 취했다는 것 역시 단지 어린 학생들이 글자를 익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이르는 것으로 무릇 「학생들이 구천 자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여 태사에게 직위를 얻을 수 있었다.」이것 역시 문자가 여기서 모두 마무리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秦代에서 『說文』이 나오기 전인 漢代 초기에 이르는 동안 『倉頡篇』, 『爰歷篇』, 『博學篇』, 『凡將篇』, 『急就篇』, 『元尚篇』, 『訓纂篇』 등과 같은 다수의 字書들이 등장했으나 모두 사라지거나 殘卷이 남아 있고 현재는 『急就篇』만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대 字書는 비록 그 실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은 아마도 대부분 『史籀篇』과 유사하게 문자를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容庚이 여기서 언급한 것은 비록 『說文』에 이르기까지 역대로 다양한 종류의 字書가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 字書로써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초기 字書와 『說文』과의 차이에 대해 馬衡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³⁾

자고로 자서는 대부분 연습용 상용 문자를 구절로 엮어 이를 읊조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으로, 사주편을 시작으로 양옹과 반고의 책이 모두 이와 같았다. 이후 허신의 설문을 시작으로 부수에 따라 글자를 나누어 배열하고 고문과 주문의 자형을 더했다. 이는 처음으로 과거 자서의 사례를 변

3) 容庚『金文編』, 馬衡序, 13-14쪽. 「自古字書, 類皆取習用之字編纂章句, 取便諷誦, 自史籀篇以下至於揚雄班固之書皆是也. 自許慎說文解字出, 分別部居, 合以古籀, 始一變昔日字書之例, 使後之治文字學者得以窺見文字制作之原及其流變, 不可謂非綜合之功也.」

화시킨 것으로 이후 문자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문자가 만들어지는 근원 및 변천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종합적인 공로라 아니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초기 字書의 성격은 주로 문자를 배우고 익히는 학습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說文』과 같은 본격적인 문자학 연구서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일반적으로 중국 최초의 字書를 『史籀篇』이 아닌 『說文』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容庚의 시각으로는 『說文』 역시 완전한 字書로써는 아직 부족했다. 이는 아마도 『說文』과 그 이전의 字書에는 甲骨文과 金文을 비롯한 古文字 자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수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다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說文』과 그 이전의 字書를 평가한 것으로 甲骨文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새롭게 출토된 金文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풍부한 古文字 자형을 수록할 수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것 이었다.

2) 呂大臨 『考古圖釋文』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다양한 종류의 字書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金文 字書는 漢代 『說文』이 출현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宋代에 이르러 비로소 편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金文學 字書의 기원은 宋代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宋代는 중국 金文學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로 청동기 연구가 전성기를 이룬 清代 학자들의 이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들의 성과 위에서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宋代의 대표적 金文學 연구자인 呂大臨이 편찬한 『考古圖釋文』은 최초로 韻部를 기준으로 자형을 수록한 金文 字書의 鼻祖로 알려져 있다⁴⁾. 따라서 『考古圖釋文』의

4) 宋代의 金文 字書로는 이외에도 王楚 『鐘鼎篆韻』, 薛尙功 『廣鐘鼎篆韻』 등이 있으나 현재는 이미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王楚의 字書는 元代 楊鈞 『增廣鐘鼎篆韻』에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밖에도 金代 黨懷英 『鐘鼎集韻』, 明代 朱云 『金石韻府』 등이 있다. 姚孝遂 『中國文字學史』, 204-205쪽. 이들 字書 역시 金文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 영향

序文 내용은 초기 金文 字書의 體例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후 등장하는 字書는 주로 凡例의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宋代 이전의 古書類의 字書는 대부분 序文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⁵⁾.

그러나 지금 고고도에 수록된 청동기 명문의 문의를 살펴보면 소전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청동기의 동일한 문자임에도 필획이 많고 적음이 있고 편방의 위치가 상하좌우로 같지 않다.

이것은 후일 고문자 字書의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청동기 銘文에는 필획과 편방의 위치가 다른 다양한 異體 자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표제자인 小篆과 별도의 異體 자형을 수록하는 金文 字書의 기본 형식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최근에 출간된 고문자 字書에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異體 字形의 종류를 분류하였다⁶⁾.

서로 다른 청동기의 彝, 尊, 壽, 萬 등의 문자는 기물마다 필획이 모두 차이가 있으니 이로써 고문자의 자형은 모두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진대에 이르러 대전을 생략하고 고쳐 하나의 자형으로 통일하니 따라서 고문의 필획은 소전으로 포괄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고문은 그 자형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서너 개 이고 나머지는 형상으로 그것을 알 수

력은 呂大臨 『考古圖釋文』에 미치지 못했다.

- 5) 呂大臨 『考古圖釋文』, 序文, 2쪽. 「然以今所圖古器銘識考其文義, 不獨與小篆有異, 而有同是一器, 同是一字, 而筆畫多寡, 偏傍位置左右上下不一者。」 序文에 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未詳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본문 내용을 인용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전체적인 體例를 소개하고 있는 형식으로 미루어 呂大臨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6) 呂大臨 『考古圖釋文』, 序文, 2-3쪽. 「其異器者, 如彝尊壽萬等字, 器器筆畫皆有小異, 乃知古字未必同文. 至秦既有省改以就一律, 故古文筆畫, 非小篆所能該也. 然則古文有傳于今者, 既可考其三四, 其餘或以形象符之. ……或以義類得之, ……或筆畫省於小篆, ……或筆畫多於小篆, ……或左右反正上下不同, ……有部居可別而音讀無傳者, ……又可考其六七, 餘皆文奇義密, 不可強釋, 姑存其舊, 以待知者。」

있으며,혹은 의미로써 그것을 알 수 있으며,혹은 소전보다 필획이 생략된 것이며,혹은 소전보다 필획이 많은 것이며,혹은 좌우, 정반, 상하가 다른 것이며,부수로 부류를 나눌 수 있으나 발음은 전하지 않는 것이다.이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여섯 일곱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형이 기이하고 의미가 분명치 않아 억지로 해석할 수 없으니 잠시 옛 상태로 남겨두고 후일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金文을 小篆과 비교하여 字形을 파악하고 있으며 小篆으로 문자가 통일되기 이전 고문자의 一字多形 현상의 異體字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은 字形을 분명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별도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考古圖釋文』에서는 이러한 자형을 모아 본문의 가장 뒤에 「疑字」와 「象形」이라는 제목으로 열거해 놓았다. 그 중에서도 字形의 일부 편방을 알 수 있는 것들은 水部, 馬部, 金部 등과 같이 部首나 편방별로 분류해 놓았으며 부분적인 편방도 파악하기 힘든 자형은 「無所從」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여기에 모았다. 해석이 불가능한 자형을 별도로 모아서 수록한 이러한 방식 역시 후일 金文을 비롯한 고문자 字書에서 기본적으로 채용하는 형식이 되었으며 이는 또한 당시의 신중한 연구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王國維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7).

오로지 오대징의 『恒軒所見所藏吉金錄』에서 처음으로 알아보기의 실이 가는 명문을 적으면서 별도의 풀이를 더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說文古籀補』도 편찬했는데 자형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별도의 부록을 편찬했다. 이와 같은 것은 『설문』에서 闕이라 주석을 다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금 옛 문자들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고 고문자학 역시 날로 발전함에 따라 오대징 자서의 부록 가운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형이

7) 容庚『金文編』, 王國維序, 7-8쪽. 「惟吳清卿中丞之恒軒所見所藏吉金錄, 始專摹疑識不附釋文, 又中丞撰說文古籀補, 別以字之不可識者爲附錄一篇, 乃有合於說文注闕之例. 今古文日出古文字之學亦日進, 中丞書中附錄之字, 頗有可灼知其爲某字者, 其本書中之字亦有不能不致疑者. 顧未有續中丞書, 而補其闕遺匡其違失者, 亦茲學之缺典也。」

있으며 또한 본문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형이 들어있다. 따라서 오대징의 자서를 읽지 않고 자형 풀이의 누락을 보충하고 잘못 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이러한 학문의 단점이다.



해석이 되지 않는 자형을 별도의 부록으로 엮는 것을 그는 吳大澂의 『恒軒所見所藏吉金錄』과 『說文古籀補』에서 기원한 것으로 언급했으나 『考古圖釋文』의 사례를 통해 이미 呂大臨이 이러한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확하게 파악이 힘든 자형을 별도로 모아 附錄에 수록하는 것을 『說文』의 六闕⁸⁾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용의 성격상 일정 부분 부합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說文』의 六闕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비에 呂大臨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⁹⁾. 이러한 방식은 金文 뿐만 아니라 甲骨文과 같은 다른 영역의 古文字 字書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¹⁰⁾. 따라서 宋代 呂大臨의 字形 풀이에 대한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는 이후 고문자 字書의 하나의 기본적인 표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考古圖釋文』의 字形 수록 방식은 『說文』이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字書가 『說文』의 수록 체제와 部首에 따라 수록 순서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廣韻』의 韻目を 근거로 韻書와 같은 上平, 下平, 上, 去, 入의 四聲

8) 『說文』에서 발견되는 수록 문자의 누락, 字義 풀이의 누락, 字形 분석의 누락, 字音 설명의 누락, 部首의 누락, 字形 구조와 의미의 연관성 설명에 대한 누락과 같은 여섯 가지를 이른바 六闕이라고 한다. 이규갑 『漢字學教程』, 85-88쪽.

9) 吳大澂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說文古籀補』, 凡例, 3쪽. 「이전의 풀이를 따를 수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으며 본인의 의견이 보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부록 한 권을 만들어 이후의 학자들이 이를 바로 잡게 기다린다.」(舊釋有可從而未能盡埒, 己意有所見而未爲定論者, 別爲附錄一卷, 是而正之以俟後之君子.)

10) 孫海波 『甲骨文編』, 編輯凡例, 3쪽. 「알아볼 수 없는 문자이거나 혹은 그 문자를 비록 경학 연구자들이 풀이를 했으나 아직 정설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편방이 따르는 분류에 의거하여 부록 상편에 넣는다. 교정을 할 때 정편과 부록 중에서 추출한 글자 및 자서를 완성한 후 새롭게 보충된 문자는 모두 부록 하편에 넣는다.」(不能辨識的字, 或其字雖經學人考釋而尙未成定論者, 畧依其偏旁所從分類, 收入『附錄上』. 校改時從正編和附錄中所抽出來的字以及寫定後所補收的新字, 均列入『附錄下』.)

분류법을 취했다. 그리하여 그 시작은 上平聲 東部 아래 東, 同, 中 등과 같은 순서로 자형을 배열하였다. 『考古圖釋文』의 편찬자에 관해서 翁方綱은 『四庫全書』跋文에서 『籀史』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趙九成이라 언급하기도 했으나 呂大臨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字書가 呂大臨의 『考古圖』를 위해서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考古圖釋文』은 모두 여든 다섯 개의 청동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考古圖』의 銘文이 있는 청동기와 그러한 銘文 가운데 중요한 것을 대부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字形의 수록은 一字一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異體 자형을 함께 실었다. 매 글자는 楷書를 표제자로 삼았으며 그 아래 反切로 발음을 표기하였다. 金文에는 출처를 기입했으며 때로는 字形 아래 간단한 풀이를 더했다. 正編에는 標題字 408자와 重文 715자를 수록했으며 附錄에는 重文 69자를 실었다. 그러나 金文 자형의 摹寫가 정확하지 않고 일부 考釋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것은 『考古圖釋文』이 拓本을 취하지 않고 摹本을 수록하였고 또한 당시 시대 상황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그래도 과오보다는 공로가 많은 字書임은 분명하다. 中을 예로 들어 내용 풀이의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에서는「 (中), 內也. 從口 | 下上通也.  古文中。」이라 하였으며 字書에 수록된 자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考古圖釋文』	 <朝事尊>	 <敦>
『說文古籀補』	 <頌敦>	 <卯敦>
『金文編』	 <中鉦>	 <中盃>
	 <中父辛爵>	 <散盤>

먼저 『考古圖釋文』에서는「척궁절, 백중의 중과 같은 발음이다.」¹¹⁾와 같이 해당 글자의 反切을 포함한 발음을 표기하였다. 이는 본 字書의 수록 체례

11) 呂大臨 『考古圖釋文』, 4쪽. 「陟弓反, 又音伯仲之仲」

가 韻書와 같은 분류법을 취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中의 자형 아래 「설문 자형은 中으로 고문에서는 中의 편방을 대부분 中으로 적는다」¹²⁾ 라고 하여 『說文』의 篆文과 重文인 古文 자형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종합 하면 『考古圖釋文』에는 字形과 字音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本義인 字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³⁾. 吳大澂의 『說文古籀補』에서는 中에서 「바른 것이다. 두 개의 깃발 가운데 서 있으니 반드시 바르다」¹⁴⁾ 그리고 中에서 「이것의 모양과 같이 깃발의 장식이 왼편을 향하고 있다」¹⁵⁾ 고 풀이 하였다. 이것은 呂大臨의 분석 보다는 좀 더 진보한 것으로 字形의 本義와 異體 자형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金文編』에서는 「중은 가운데를 나타내는 글자로 口와 中로 이루어져 있다. 백중을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中과 같아서 장식이 없다. 史의 구성 성분인 中은 中으로 적는다. 나진옥설」¹⁶⁾과 같이 다른 字形 구조와의 연관성을 지적함은 물론 기존 학자의 설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考古圖釋文』의 中에서 「史의 자형을 中과 같이 적은 것은 대략 서로 유사하다」¹⁷⁾고 하여 中과 史의 일부 자형이 유사하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류로써 史의 金文은 中, 中, 中과 같이 일부가 中의 자형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자형으로 中과 史를 혼용할 수는 없다. 정리하면 呂大臨의 『考古圖釋文』은 비록 釋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考古圖』나 『續考古圖』와는 완전히 구분 되는 전형적인 字書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字形의 풀이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후 등장하는 金文 字書의 기본적인 표준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2) 呂大臨 『考古圖釋文』, 4쪽. 「說文作 中, 古文從 中者多作 中。」

13) 물론 字義에 대한 풀이가 보이는 字例 역시 존재하지만 正文의 모든 문자에 별도의 해석을 더하지는 않았다.

14) 吳大澂 『說文古籀補』, 3쪽. 「正也, 兩旗之中立, 必正也。」

15) 吳大澂 『說文古籀補』, 3쪽. 「如此象旗旂向左形。」

16) 容庚 『金文編』, 28쪽. 「中, 凡中正字, 皆從口從 中, 伯仲字皆作 中, 無旂形. 史字所從之中作 中, 羅振玉說。」

17) 呂大臨 『考古圖釋文』, 4쪽. 「史作 中略相似」

3. 字書와 金文學의 관계 비교

1) 『說文古籀補』와 『金文編』

清代 乾嘉 년간에 說文學이 번성하자 많은 학자들이 字形, 字音, 字義 세 방안을 기준으로 『說文』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학술 조류의 영향으로 청대 말기에 이르러 吳大澂은 『說文』의 部首 배열법을 따라 『說文古籀補』라는 대표적인 고문자 字書を 편찬하였다. 이는 후일 民國 시기에 이르러 容庚이 편찬한 『金文編』을 비롯한 많은 字書의 규범으로 계승되기에 이르렀고¹⁸⁾ 상당수의 古文字 字書들이 지금까지도 당시에 완성된 편찬 체계를 계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金文編』은 民國 초기의 金文學 연구가인 容庚이 편찬한 字書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商周 青銅器 銘文의 字形 수록집이다. 특히 『說文古籀補』는 『金文編』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¹⁹⁾. 따라서 이 두 字書의 體例 비교를 통하여 字書의 변천이 金文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해 볼 수 있다. 『說文古籀補』와 『金文編』은 古文字學의 가치는 물론이고 金文 字書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馬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²⁰⁾.

송대에는 금석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劉球와 婁機와 같은 이들은 漢隸에 대해 전문적인 저서를 남겼다. 또한 고문자의 집록에 있어서는 郭忠恕의 『汗簡』과 夏竦의 『古文四聲韻』 등이 등장하였다.

18) 容庚 『金文編』, 凡例, 1쪽. 「자형 분류와 부수의 체제는 대략 허신의 『설문』을 따른다.」(分別部居, 畧依許慎 『說文解字』.)

19) 「『금문편』은 오대징의 자서를 기원으로 하여 많은 부분에서 이를 보충하고 바로 잡았으니 이는 오대징의 연구법을 능히 활용하여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其書祖述中丞而補正中丞書處甚多, 是能用中丞之法而光大之者.) 容庚 『金文編』, 王國維序, 8쪽.

20) 容庚 『金文編』, 馬衡序, 15-16쪽. 「有宋一代, 研求金石文字之學殆成專家, 劉球婁機輩之於漢隸皆有輯錄之專書, 而輯錄古文者, 惟郭忠恕之汗簡, 夏竦之古文四聲韻, 其所徵引雖有數十家, 而於彝器文字亦未采及. 晚清之際, 吳大澂纂說文古籀補, 而後彝器文字始有輯錄之專書, 此所謂綜合者也.」

다만 여기에 인용된 자료는 비록 수집 중에 이르지만 청동기 명문은 채용되지 않았다. 청대 말기에 이르러 오대징이 『說文古籀補』를 편찬함으로써 이후 금문은 비로소 전문적인 저작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종합인 것이다.

즉 宋代에 이미 『汗簡』과 『古文四聲韻』 같은 傳鈔古文을 수록한 字書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대량의 청동기 銘文을 수록하기 시작한 것은 『說文古籀補』 이후로 보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인 것은 宋代 呂大臨의 『考古圖釋文』과 같은 전형적인 金文 字書を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한편 體例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²¹⁾

오대징의 자서는 근거가 해박하고 해석이 신중하여 여러 새로운 이론을 내었으나 두 차례의 수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된 것이 적지 않고 의심되는 문자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청동기 명문 이외에 화폐, 도장, 도기 등의 문자도 함께 수록하였으니 그 체례 역시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수록하고 있는 자료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정확하지 않은 摹寫된 字形이 보인다는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청동기 이외의 화폐나 도장에 새겨진 戰國文字 자료가 함께 수록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馬衡은 『金文編』과 비교하여 이러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金文編』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적인 청동기 銘文 수록집이므로 金文만을 집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說文古籀補』는 역시 그 이름에서 드러내듯이 『說文』 古文과 籀文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字書이므로 金文이외에 다양한 戰國文字 자료를 수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字書에서 金文과 戰國文字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體例에 대한 비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사실 이후에 등장한 『金

21) 容庚 『金文編』, 馬衡序, 16-17쪽. 「吳書授據賅博, 攷釋審慎, 多所發明, 然兩次搜輯, 遺漏尙多, 疑似之字亦所不免, 且於彝器之外兼收錢幣璽印陶器等文, 體例亦未盡善。」

文編』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문자 字書들이 吳大澂의 체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2) 字書의 體例와 字例

字書와 金文學의 관계를 비교하여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은 모두 『說文古籀補』와 『金文編』의 편찬 體例 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두 字書의 凡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吳大澂과 容庚의 體例를 비교하여 字書와 金文學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특히 『說文古籀補』의 凡例에 보이는 내용은 향후 金文을 비롯한 고문자 字書의 體例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살피는 것은 이상적인 字書의 모형 확립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字書 비교의 편의를 위해 『說文』第一篇에 수록된 小篆을 기준으로 범위로 정하여 『說文古籀補』와 『金文編』의 體例와 字例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은 두 字書 모두 『說文』의 체제를 따라 字形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비교를 통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이를 대략 『說文』所無, 收錄字形, 合文, 孳乳, 異體字, 重文, 引用, 考釋의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실제 字例와 함께 분석하였다.

(1) 『說文』所無

『說文古籀補』를 비롯한 字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본적으로 『說文』의 체례를 직접 계승했다는 점으로 후일 『金文編』을 비롯한 대다수의 字書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았다²²⁾. 吳大澂의 字形 수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²³⁾

22) 「부수의 구분과 자형의 배치는 모두 설문을 따랐다. 각각의 자형에는 설문의 전문을 추가하고 이와 함께 본 자서의 순서 번호를 밝혀 적어 조리를 분명히 하였다.」(分部別居, 悉依說文解字. 每字之首, 冠以說文的篆文, 並注明此編的順序數, 以清眉目.) 孫海波 『甲骨文編』, 編輯凡例, 3쪽. 수록된 자형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더하는 것은 『金文編』과 『甲骨文編』에 보이는 것으로 이는 『說文古籀補』에 비해 검색 등이 편리한 체례이다.

23) 吳大澂 『說文古籀補』, 「凡例」, 1쪽. 「分部別居悉殷許氏, 原書有許書所無之

자형 분류와 부수의 체례는 모두 허신을 따른다. 다만 원서에는 있으나『설문』에 없는 문자는 각 부의 마지막에 추가하며, 알 수 없는 것 역시 역지로 풀이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說文』의 수록 체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說文』에 들어 있지 않은 문자의 경우 字形을 분석하여 字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說文所無」라 표기하고 각 部首의 마지막에 배치했다.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吳大澂은 呂大臨의 영향으로 字形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역지로 해석하지 않고 본문의 가장 뒤에 별도의 附錄을 만들어 모두 여기에 모았다²⁴⁾. 이들 凡例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것은 字形을 구성하고 있는 편방의 분석을 통해 部首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正文에 배치하였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字形의 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附錄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部首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거나 附錄이 아닌 본문에 배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기준으로 문자를 수록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說文古籀補』 ²⁵⁾	
𦉑	𦉑 <古鉢文>
𦉒	𦉒 <古鉢文>

璽印 문자인 鉢과 𦉒는 『說文』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從艸로 이루어진 字形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附錄에 포함시키지 않고 正文 從艸 部首의 가장 마지막에 배열하였다. 容庚 역시 이러한 체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²⁶⁾. 다만

字, 附于各部之末, 不可識者, 亦不强解。」

24) 吳大澂 『說文古籀補』, 「凡例」, 3쪽. 「己意有所見而未爲定論者, 別爲附錄一卷。」

25) 吳大澂 『說文古籀補』卷一, 5쪽.

26) 容庚 『金文編』, 「凡例」, 2쪽. 「『설문』에는 없으나 다른 자서에 보이는 문자 가운데

吳大澂과의 차이점은 字形뿐 아니라 字音を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正文에 수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容庚 또한 「說文所無」라 적고 從龠部首 아래 다음과 같은 글자를 배치하였다.

『金文編』27)		
龠	龠 <龠齒>	龠 <龠大爵>
龠	龠 <龠侯龠>	

『說文』에 들어 있지 않은 字形에 대한 이러한 수록 체례는 이후 金文뿐만 아니라 甲骨文과 같은 기타 고문자 字書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안이 되었다²⁸⁾. 한편 『說文古籀補』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丁佛言의 『說文古籀補補』는 吳大澂의 체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⁹⁾. 즉 대부분의 미확정 자형을 附錄에 배치한 것으로 그 중에는 편방을 통해 部首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正文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吳大澂 체례의 장점은 部首를 통해 해당 글자의 屬性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점은 향후 字義

데 자형과 자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설문』각 부의 마지막에 첨가한다.」(說文所無之字而見于他字書者, 有形聲可識者, 附于說文各部之末.)

27) 容庚 『金文編』, 卷一, 41쪽.







28) 孫海波 『甲骨文編』, 編輯凡例, 3쪽. 「갑골문자 중 그 편방을 예정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설문에 들어 있지 않아도 서헌이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예를 따라 각 부수의 마지막에 이를 더하고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적는다. 또한 각 문자의 앞에는 예정된 자형을 덧붙인다.」(甲骨文有可以按其偏旁隸定者, 雖爲說文所無, 仍用徐鉉新附之例, 附於各部之後, 注明「從某從某, 說文所無」. 每字之首, 冠以隸定的字體.) 이처럼 새로운 字形을 正文에 추가하는 것을 唐代 徐鉉이 大徐本 『說文』을 편찬하면서 글자를 더한 사례에 빗대기도 했다.


29) 丁佛言 『說文古籀補補』, 「凡例」, 3쪽. 「오대징의 자서에서는 설문에 들어 있지 않은 문자 역시 본문에 수록하였다. 본 자서에서는 각 글자들을 새롭게 추가할 뿐 설문에 없거나 어떤 글자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대개 부록에 수록하였다.」(吳箸說文所無之字, 亦入正編. 本編僅及新附各字, 說文所無及疑爲某某字無定釋者, 概歸附錄.)

과약에도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편방과 部首의 과약이 가능한 경우는 附錄이 아닌 正文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2) 收錄字形



金文字書의 수록 자형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과연 순수한 청동기 銘文만을 수록할 것인지 혹은 戰國文字와 같은 다른 고문자 字形을 함께 배열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이에 관한 『金文編』의 체례는 도장과 화폐 등은 별도의 字書로 편찬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容庚의 판단은 食器類나 酒器類에 속하는 청동기의 銘文 이외에 兵器와 銅鏡 등의 문자와 같이 金文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수록해야 하며 이에 속하지 않은 기타 자형은 별도의 字書로 편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吳大澂과의 차이점으로 『說文古籀補』에서는 청동기 銘文 이외의 璽印, 貨幣, 陶器 등과 같은 다양한 戰國文字 자형을 함께 수록하였다.




『說文古籀補』 ³¹⁾	 <史喜鼎>	 <古陶器>	 <古陶器>
『金文編』 ³²⁾	 <史喜鼎>	 <邾公華鐘>	 <陳侯午鐘>

이 글자를 許慎은 「제사이다. 조상 앞에서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³³⁾라고 풀이하였다. 대부분의 金文 자형은 『說文』의 풀이와 일치하며 容庚 또한 그의 字書에서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吳大澂은 陶器에 적힌  자형을 근거로 「그릇인 豆를 사이에 두고 신에게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³⁴⁾고 해석했다. 金文과 陶文의 字形을 비교하면 豆의 편방

30) 容庚 『金文編』, 凡例, 1쪽. 「청동기 명문을 모으는 것을 위주로 하며 병기와 거울 등을 더한다. 도장, 화폐 등은 별도의 전문 자서로 편찬해야 한다.」(集錄以彝器款識爲主, 兵器鏡鑑附焉. 璽印泉幣應另爲專編.)
 31) 吳大澂 『說文古籀補』卷一, 2쪽.
 32) 容庚 『金文編』, 卷一, 11쪽.
 33) 『說文』, 一篇, 「烹(祭), 祭祀也. 從示以手持肉」

이 추가된 일종의 이체자로 字義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陶文에는 와 같이 金文과 완전히 일치하는 자형 또한 존재한다. 또 다른 예로 『說文』에는「 (茲), 艸木多益. 從艸茲省聲.」이라 하여 초목이 번성한다는 의미를 갖는 形聲으로 보았다. 字書의 자형은 다음과 같다.



『說文古籀補』	 <石鼓>
『金文編』	 <象伯簋>

吳大澂은 『說文』을 인용하며 艸部の 와 玄部の 이 經典에서 통용된다고 지적하며 石鼓文 자형을 인용했다³⁵⁾. 이에 비해 容庚은「茲, 不從艸. 字重文.」이라 하고 艸部가 없는 <象伯簋>의 자형을 인용했다. 이상의 字例로 미루어 吳大澂과 같이 金文 이외의 자형을 추가하여 다양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容庚과 같이 金文만을 수록하여 전문성을 지향할 것인지는 우열을 논하기 힘든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다만 茲와 같은 경우는 두 字書 모두 하나의 字形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참고할 수 있는 字形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金文 이외의 기타 字形의 수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合文










合文은 여러 개의 글자가 마치 한 글자와 같이 결합되고 의미와 字音은 완전히 두 글자 혹은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진 것으로³⁶⁾ 주로 甲骨文과 같은 고문자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許慎은 帝(帝)에 대해「살피는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명칭이다. 從二束聲의 형성자이다.」³⁷⁾라고 풀이하

34) 吳大澂 『說文古籀補』卷一, 2쪽. 「從手從示置肉于豆間, 以祭前代, 始爲飲食之人也.」

35) 吳大澂 『說文古籀補』卷一, 4쪽. 「說文艸部 , 艸木多益. 玄部 , 黑也. 今經典二字多通用. 石鼓.」

36) 이규갑 『漢字學教程』, 399쪽.

였다. 그가 이것을 形聲字로 풀이한 것은 오류로써 『說文』에 보이는 古文 帝의 모양을 살펴보면 꽃의 꼭지를 형상한 것으로 帝의 初文이다.

『說文古籀補』	 <周窳鼎>  <寡子卣>  <畢狄鐘>  <己且丁父癸鼎>
『金文編』	 <井侯簋>  <仲師父鼎>  <秦公簋>  <商尊>  <其卣二>

吳大澂은 <己且丁父癸鼎>의 자형에서「이 청동기만이 유일하게 조부의 명문 앞에 ▼가 첨가되었으니 이것은 帝임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꽃에 꼭지가 있어 열매가 여기서 나는 것과 같다.」³⁸⁾ 帝를 꽃의 꼭지를 형상한 象形으로 풀이한 吳大澂의 견해는 타당하다. 다만 ▼ 자체를 帝로 여긴 것은 오류이다. 한편 容庚은 <其卣二>의 帝를 上과 帝의 合文으로 보았는데³⁹⁾ 이는 타당한 것이며 甲骨文과 달리 金文에서는 合文의 예가 많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甲骨文編』⁴⁰⁾과 같이 이를 별도로 수록하지 않고 正文에 배치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수록하게 되면 合文처럼 여러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는 경우 과연 이것을 어디에 귀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복 자형을 重文이라고 표기한 것처럼 본문 중에서 合文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느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37) 『說文』, 一篇, 「帝(帝), 諦也. 王天下之號. 從二束聲。」

38) 吳大澂 『說文古籀補』卷一, 1쪽. 「此器獨於祖父上加▼字, 其爲帝字無疑, 如花之有蒂, 果之所自出也。」

39) 容庚 『金文編』, 卷一, 7쪽. 「帝, 上帝二字合文」

40) 孫海波 『甲骨文編』, 編輯凡例, 3쪽. 「갑골문에는 합쳐진 형태의 문자가 많이 존재하므로 합문 한 권을 별도로 엮어 정편 뒤에 첨가한다.」(甲骨文中合書之字甚多, 別爲「合文」一卷, 附於「正編」之後.)

(4) 孳乳

孳乳는 形聲字를 만드는 주요 방식의 하나로 대부분의 形聲字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 따라서 引伸에 의해 파생된 뜻이나 假借에 의해 새롭게 얻어진 언어는 孳乳를 이용하여 다수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⁴¹⁾. 許慎은 이것을 形聲字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다⁴²⁾.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대개 사물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는데 이를 문자라 한다. 그 후 형성을 통해 문자의 수량이 증가했는데 이를 자라고 한다. 자는 문에서 번식하여 문자의 수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段玉裁는 許慎이 말한 「形聲相益」은 形聲字와 會意字를 모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⁴³⁾. 이와 같은 孳乳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로운 字形을 字書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容庚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⁴⁴⁾.

『說文·序』에 이르기를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대개 사물에 의거하여 형체를 그렸는데 이를 文이라 하며 그 후 회의와 형성이 서로 더해지니 이를 字라고 한다. 字는 文의 파생으로 이루어져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이른다. 따라서 옛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 때 처음에는 독체자인 文에서 시작되어 여기서 파생되어 합체자인 字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문 명문을 살펴보면 文은 많으나 字는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各이 格이 되고, 乍가 作이 되고, 𠄎이 𠄎旂의 𠄎과 또 𠄎夏의 𠄎이 되는 것은 모두 자유되었다고 말하고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어떤 글자로 중복되어 보인다고 밝혔다.

41) 唐蘭 『中國文字學』, 99쪽.


42) 許慎 『說文』敍, 十五篇, 2쪽. 「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字者, 言孳乳而浸多也.」

43) 段玉裁 『說文解字注』, 十五篇, 2쪽. 「形聲相益, 謂形聲會意二者也.」

44) 容庚 『金文編』, 凡例, 1-2쪽. 「說文敍云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字者言孳乳而浸多也. 故知古人造字, 初有獨體之文, 孳乳而爲合體之字. 其見于金文者, 文多而字少, 如各爲格, 乍爲作, 𠄎爲𠄎旂之𠄎, 又爲𠄎夏之𠄎, 皆竟稱孳乳爲某, 分隸兩部, 注明某字重見.」

이와 같이 孳乳를 獨體字인 文의 象形과 指事 등에서 合體字인 字의 會意와 形聲의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 것은 許慎이나 段玉裁의 풀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金文編』에서 이러한 자형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에서는 「丕(丕), 大也. 從一不聲。」이라 하여 丕는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形聲字로 풀이했다.


『說文古籀補』	 <孟鼎>  <宋公佐戈>
『金文編』	 <頌鼎>







吳大澂은 <孟鼎>의 자형을 「古丕字, 不字重文」이라 하였고 容庚은 역시 <頌鼎>의 자형을 「丕, 不從一. 不字重文」이라 적었다. 즉 두 字書 모두 丕에서 이 字形이 중복되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說文』은 「 (不), 鳥飛上翔不下來也. 從一, 一猶天也. 象形. 凡不之屬皆從不。」이라 하여 丕은 새가 위로 날아가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字形의 모양으로 판단해 보면 許慎의 풀이는 오류이며 현재는 本義를 식물의 꽃받침 모양을 형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丕로 引伸되어 크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부정사인 丕로 假借되어 사용되었다.


『說文古籀補』	 <孟鼎>  <聘敦>
	 <邢人鐘>  <齊陳曼簠>
『金文編』	 <天亡簠>  <秦公簠>
	 <不易戈>  <洹子孟姜壺>

丕에 대해 吳大澂은 <孟鼎>의 자형을 근거로 「古文以爲丕字, 丕字重文」이라 하였고 容庚은 <天亡簠>의 자형으로 「不, 孳乳爲丕, 大也。」라 하였다. 앞선 丕의 풀이와 비교해 보면 吳大澂의 字書는 本字와 孳乳로 인해

만들어진 字形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다만 둘로 나누어 수록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容庚은 象形 글자인 不이 孳乳되어 形聲인 丩가 되었다는 것을 字書의 체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吳大澂에 비해 문자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발전된 체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許慎이 풀이한 不의 本義 오류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 다른 예로 『說文』에는 「 (每), 艸盛上出也, 從丩母聲。」으로 每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라 풀이하고 이를 形聲의 구조로 보았다. 字書에는 다음과 같은 字形이 보인다.

『說文古籀補』	 <杞伯敏父鼎>	 <母癸鼎>
『金文編』	 <杞伯簋>	 <杞伯簋>
	 <天亡簋>	 <何尊>



吳大澂은 이에 대해 <杞伯敏父鼎>과 <母癸鼎>의 자형에서 각각 「古文以爲敏字, 敏下重文。」 그리고 「古文以爲母字, 母下重文。」이라고 적었다. 容庚 역시 이와 유사하게 「孳乳爲誨」 혹은 「孳乳爲敏」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孳乳의 과정은 獨體인 文에서 合體인 字로의 파생 과정이다. 그렇다면 形聲인 每에서 다시 合體인 誨 혹은 敏으로 파생됐다는 것은 許慎이 敍에서 밝힌 孳乳의 체례와는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 每의 金文을 살펴보면 일부 자형만이 從丩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從 혹은 從一의 자형 아래 從母 혹은 從女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형의 형태는 甲骨文 역시 유사하다. 이에 대해 葉玉森은 여성이 머리에 비녀를 꼽고 있는 형상으로 풀이하여 모발이 풍성해야 비녀를 꼽을 수 있으므로 引伸되어 풍성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⁴⁵⁾. 결국 小篆 자형이 從丩와 유사하여 許慎은 풀이 자라는 모습으로 오인하고 從丩母聲의 形聲 合體字로 잘못 풀이한 것이다. 지금의 金文이나

45) 李孝定 『讀說文記』, 11쪽.

小篆을 보면 하나로 연결된 獨體 자형으로 假借되어 誨 또는 母로 사용되었
다46). 이로써 獨體인 每가 合體인 誨와 敏으로 孳乳되는 합당한 이유를 얻
을 수 있다. 한편 吳大澂은 이를 「古文以爲敏字」, 「古文以爲母字」라고
적었는데 이를 통해 그가 孳乳와 假借의 예를 「古文以爲」의 용어로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說文』에는 「折(斫), 斷也. 從斤斷艸. 譚長說. 籀文折從
艸在彡中, 彡寒故折. 篆文折從手.」라고 하여 斫을 도끼로 풀을 베어서
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從斤斷艸의 會意로 보았다. 또한 彡은 冰의 古文
으로 얼음이 얼어있는 모습을 본뜬 象形이다. 따라서 許慎은 籀文에서 斷艸
사이에 있는 從二의 모양을 얼음인 彡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指事符號인 풀이 끊어진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許慎의 풀이는 오류이
다.47) 두 字書의 자형은 아래와 같다.

『說文古籀補』	 <毛公鼎>	 <師寰敦>	 <虢季子白盤>
『金文編』	 <孟鼎二>	 <折觥>	
	 <師同鼎>	 <洹子孟姜壺>	

吳大澂은 <毛公鼎>의 자형을 들어 「象杙之折, 許氏說從斤斷艸.」로 말
뚝이 부러진 것을 형상한 것이라 하였고 <師寰敦>에서는 「折從二中, 與小
篆同.」이라 하여 金文과 小篆 자형이 같다고 하였다. 斫의 甲骨文은 ,
로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모양을 형상한 것이다. 따라서 연약한 풀을 도끼
를 이용하여 벤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결국 斫은 점차 訛變되어 從
艸의 모양으로 변한 것으로 金文과 小篆의 자형은 이로부터 기인한 것이
다48). 한편 容庚은 <洹子孟姜壺>의 자형을 예로 「孳乳爲折」라 하였다. 그

46) 李孝定 『讀說文記』, 11쪽.







47) 李恩江, 賈玉民 『說文解字譯述』, 89-90쪽.


48) 李孝定 『讀說文記』, 14쪽.


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會意인 𠄎에서 다시 形聲인 𠄎가 되므로 許慎이 敍에서 밝힌 獨體인 文에서 合體인 字로 파생되는 蔡乳의 통상적인 체례와는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容庚이 생각하는 蔡乳의 개념은 許慎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蔡乳는 대다수 形聲 혹은 일부 會意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하나로 蔡乳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초기 단계의 문자는 반드시 獨體인 文이 아니어도 그 결과로 다시 새로운 合體가 만들어 진다면 역시 蔡乳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異體字

『說文』에는 「蔡(蔡), 艸叒也. 從艸祭聲。」이라 하여 蔡를 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形聲으로 보았다. 字書에서 이들의 자형은 아래와 같아서 吳大澂은 璽印 문자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미 小篆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容庚이 인용한 金文 자형은 小篆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說文古籀補』	 <古鉢文>	 <古鉢文>
『金文編』	 <蔡大師鼎>	 <九年衛鼎>
	 <蔡子鼎>	 <鄂君啟車節>

容庚은 <蔡大師鼎>의 자형 아래 「체의 위삼자석경 고문의 자형은  로 이것이 채임을 확정하게 되었다.»⁴⁹⁾고 하였다. 甲骨文과 金文 등에 보이는 蔡의 자형은 이처럼 윗부분이 從大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李裕民은 이에 근거하여 蔡를 어떤 사물로 下肢를 자르는 모양을 형상한 것이라 풀이했는데 이는 蔡가 가지고 있는 契 혹은 擘의 의미와 유사하다⁵⁰⁾. 경우에 따라서는 <蔡子鼎>과 <鄂君啟車節>의 자형과 같이 각각 從心과 從邑으로 이루어진 것도 보인다. 容庚은 이와 같은 本義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후일 國名으로

49) 容庚 『金文編』, 卷一, 36쪽. 「蔡, 魏三字石經古文作 , 故得定爲蔡字。」

50)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63쪽.

사용되는 것을 일종의 假借 현상으로 보았다⁵¹⁾.

과거에는 전용자가 있었으나 후에 가차자가 통용되어 도리어 전용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를 들어 𣎵는 𣎵國을 지칭하는 전용자로서 경전에서는 蔡로 적는다.여기서는 『설문』에서 고문과 주문을 함께 적는 사례를 인용하여 이러한 자형을 蔡, 爽, 眉 등과 같은 문자 아래 배열한다.

『說文』에는 표제자인 小篆 이외에 本義의 파악이나 자형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異體字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重文이라고 한다. 이러한 重文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戰國시기의 문자인 古文과 籀文이다. 容庚은 『說文』의 이러한 체례를 모방하여 전용자 자형 𣎵를 경전에 보이는 蔡 아래 수록하였다. 吳大澂의 字書에서는 蔡를 이와 같이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그 역시 이와 같은 체례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⁵²⁾.

고대 기물의 명문 가운데 자형이 다소 다른 것은 설문 중문의 예를 모방하여 모두 표제자의 아래 수록한다. 중복되는 자형이 수십 자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고문자의 변화가 하나가 아니고 변체와 간체가 서로 다음을 알 수 있다. 주대 말기의 기물 가운데 그 자형이 고문이나 주문과 다른 것은 또한 진시황 분서 이전의 문자를 허신이 취한 것으로 따라서 이 또한 함께 실는다.

결국 이와 같은 수록 體例 역시 근본적으로는 『說文』의 영향을 받아 吳大澂이 먼저 採用하고 다시 容庚이 이를 이어받아 字書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吳大澂은 이러한 異體 자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古文字의 변화

- 51) 容庚 『金文編』, 凡例, 2쪽. 「古有專字, 後來段借行而專字廢者, 如 𣎵爲 𣎵國之專字, 經典以蔡爲之,茲用說文附收古籀之例, 入之蔡爽眉之下。」
- 52) 吳大澂 『說文古籀補』, 「凡例」, 2쪽. 「古器有字體小異者, 仿許書重文之例, 悉附本字下. 有重至數十字者, 見古文字之變化不一, 籀簡不同也. 間有晚周之器, 其文不類古籀者, 亦秦籀以前之字爲許氏之所取, 故並存之。」

를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字形의 수록이 바로 字書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⁵³⁾.

(6) 重文

吳大澂의 字書에는 重文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說文』 重文의 개념과는 다르다. 즉 『說文』 重文이 異體字의 개념이라면 여기서의 重文은 일종의 初文과 이후 이로부터 파생된 分化字의 의미로 볼 수 있다.⁵⁴⁾


고대 기물에서 통용되는 문자 가운데 예를 들어 且가 祖考의 문자가 되는 것과 같이 설문의 풀이와 같지 않은 것은, 이처럼 한 글자에 두 개의 풀이가 있으면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실고서 어떤 글자의 중문이라고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說文』에서 「祖(祖), 始廟也. 從示且聲。」이라 하여 祖는 조상으로 宗廟에서 제를 올리는 대상을 의미하는 形聲으로 보았다.



『說文古籀補』	祖 <齊子仲姜罇>
『金文編』	 <孟鼎> 祖 <命罇>  <樂書缶> 祖 <陳逆簋>


53) 「하나의 문자가 여러 개의 이체 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설문 혹체의 사례를 따라 해당 글자 아래 혹은 어떤 자형이 된다고 적었다.」(凡一字而具數體的, 用說文或體之例, 於其字下注明「某或爲某」.) 「하나의 문자가 여개 개로 사용되어 다른 곳에서도 보이면 해당 글자 아래 어떤 글자를 사용하여 다른 무엇이 된다, 또는 어떤 글자가 다른 무엇이 된다고 적어 구별한다.」(凡一字而有數用的, 用互見之例, 於其字下注明「用某爲某」, 「某用爲某」, 以資區別.) 孫海波 『甲骨文編』, 編輯凡例, 3쪽. 이러한 다양한 異體 자형의 수록과 用例의 구분은 이후 『甲骨文編』과 같은 字書에도 영향을 미쳤다.

54) 吳大澂 『說文古籀補』, 「凡例」, 1쪽. 「古器通用之字, 有與許書詁訓不合者, 如且爲祖考字,一字二解者, 分隸兩部注明某字重文.」

이에 대해 吳大澂은 <齊子仲姜罇>의 자형에서 「且字重文」이라 하였고 容庚은 <孟鼎>의 자형 아래 「祖, 不從示. 且字重見」이라 하여 從示를 포함하지 않는 자형으로 且의 자형과 중복되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비교하면 두 字書는 각각 重文과 重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吳大澂과 달리 容庚은 凡例에서 이러한 重文의 예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說文古籀補』의 且⁵⁵⁾를 살펴보면 역시 <孟鼎>의 자형에서 「古文以爲祖字」라 하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齊子仲姜罇>의 자형을 수록하고 「祖字重文」이라 밝혔다. 즉 동일한 자형을 두 번 중복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에 비해 『金文編』은 <己且乙尊>의 를 인용하고 「孳乳爲祖」라 하였다. 즉 단순한 重文의 관계를 넘어서 獨體와 合體의 孳乳의 관계로 이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說文』에는 「 (葉), 艸木之葉也, 從艸葉聲」이라 하여 葉을 초목의 잎이며 形聲이라 하였다. 두 字書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자형을 수록하였다.

『說文古籀補』	 <拍盤>
『金文編』	 <拍敦蓋>

吳大澂과 容庚은 각각 「古文葉, 不從艸. 葉字重文」과 「葉, 不從艸. 葉字重文」이라 하여 서로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字形으로 미루어 葉의 고문은 나무의 가지와 잎을 형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容庚은 앞선 祖의 예에서 사용한 重見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번에는 吳大澂과 같은 重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說文古籀補』의 葉을 살펴보면 <齊子仲姜罇>의 자형 을 수록하고 「고문 엷이다. 나무의 가지와 잎을 형상한 것이다」⁵⁶⁾라고 풀이했다. 반면 『金文編』에서는 동일한 자형에 대해

55) 吳大澂 『說文古籀補』, 卷十四, 3-4쪽.

56) 吳大澂 『說文古籀補』, 卷六, 3쪽. 「古葉字, 象木之有枝葉也」

「葉, 蓂乳爲葉」이라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容庚은 重見과 重文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결국 蓂乳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예도 있다. 『說文』에는 「兀(元), 始也. 從一兀聲。」이라 하여 元을 시작의 의미를 가진 形聲으로 풀이하였다. 甲骨文과 金文 등의 兀과 같은 자형은 小篆과 유사하나 金文 兀은 元의 원시 象形으로 사람 몸의 형상에 머리 부분만 강조하여 그린 것이다. 한편 고문자에서 ●이 一과 같은 선으로 바뀌는 것은 종종 발견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元의 本義는 사람의 몸과 머리를 형상한 것이고 시작의 의미는 引伸義이다.

『說文古籀補』	兀 <虢甲鐘>	兀 <沈兒鐘>
『金文編』	兀 <兀作父戊卣>	兀 <師西簋>
	兀 <黃韋父卣盤>	兀 <邛季戈>

容庚은 이에 대해「설문의 풀이는 시작으로 一兀의 회의자이다. 고경성은 元의 초문과 兀은 같은 문자라 하였다.»⁵⁷⁾고 풀이하고 「兀字重見」이라 적었다. 한편 『說文』에는 兀을 높고 평평한 것으로 풀이했으며⁵⁸⁾ 『說文古籀補』에는 兀을 수록하지 않았다. 『金文編』에는 元에서 이미 수록한 <兀作父戊卣>의 자형 兀을 중복하여 열거했지만 별도의 추가 설명은 더하지 않았다. 사실 元과 兀은 본래 동일한 글자로 許慎이 兀을 높고 평평한 것이라 풀이한 것도 本義인 머리에서 나온 引伸義이다.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높고 정수리 부분이 약간 평평하므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元의 本字가 바로 兀이며 許慎이 元을 從一兀聲의 形聲으로 본 것은 오류이다. 결국 앞선 다른 예와는 달리 容庚이 元과 兀을 蓂乳의 개념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본래 동일한 글자이므로 獨體와 合體의 蓂乳와는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57) 容庚 『金文編』, 卷一, 1쪽. 「『說文』始也. 從一從兀. 高景成云乃元字初文與兀爲一字. 兀字重見。」

58) 『說文』, 八篇, 8쪽. 「高而上平也。」

보인다. 결국 이상의 字例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容庚의 字書에서 重文 혹은 重見이라 표기한 것을 모두 孳乳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7) 引用


字書는 다양한 字形을 수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의 說을 인용한 간단한 注釋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考古圖釋文』으로부터 내려온 金文 字書의 하나의 전통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당연히 『說文』의 풀이이다. 예를 들어 『說文』에는 「璧(璧), 瑞玉, 圜也. 從玉辟聲。」이라 하여 璧이라는 玉의 종류와 모양을 적었다.



『說文古籀補』	 <齊侯壺>	 <齊侯壺>
『金文編』	 <洹子孟姜壺>	 <召伯簋>



吳大澂은 「許氏說璧, 瑞玉, 圜也。」라 하여 『說文』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아마도 그가 許慎의 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許氏說」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예로 『說文』에 「環(環), 璧肉好若一謂之環, 從玉叕聲。」이라 하여 環을 옥의 구멍과 둘레의 크기가 같은 옥이라 적었다.

『說文古籀補』	 <敦>	 <師遽方彝>
『金文編』	 <番生簋>	 <毛公鼎>

吳大澂은 「肉好若一謂之環, 古環字, 象形。」이라 하여 비록 출처가 『說文』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을 옮겼다. 다만 許慎이 形聲으로 풀이한 것을 象形으로 여기고  의 자형을 수록했다. 이러한 字形의 수록이 정확한지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지만 적어도 『說文』의 내용을 분석하고 수정하려

는 시도는 주목된다. 또 『說文』은 「 (蔥), 菜也. 從艸蔥聲。」으로 蔥을 일종의 야채의 명칭으로 풀이했다.

『說文古籀補』	 <毛公鼎>
『金文編』	 <毛公鼎>

吳大澂은 「古蔥字, 象形.許氏說蔥 帛青色, 從糸後人所加。」라 하여 不從艸의 자형  은 蔥의 古字라 하였다. 그리고 許慎과 달리 이 글자를 象形으로 보았으며 蔥을 편방으로 하고 있는 蔥 의 『說文』내용을 인용하였다. 周法高는 蔥의 金文 자형을 알뿌리 식물의 球根의 모습으로 보았다⁵⁹⁾. 이는 蔥의 初文이며 從艸蔥聲의 자형은 後起形聲字이다. 따라서 吳大澂의 풀이가 許慎에 비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金文編』에 비해 『說文古籀補』에서 『說文』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 것은 字書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說文』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므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 다른 예로 『說文』은 「 (若), 擇菜也. 從艸右, 右手也. 一曰杜若香艸。」라 하여 若을 손으로 식물을 따는 것이라 하였다.

『說文古籀補』	 <孟鼎>  <散盤>
『金文編』	 <散盤>  <散盤>

그러나 金文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으로 여기서 順의 의미가 나오게 되었고 이후 引伸되어 擇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⁶⁰⁾. 그러나 吳大澂은 이를 꽃이 무성하고 가지와 잎이 자라는 것으로

59)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68쪽.

60) 李恩江, 賈玉民 『說文解字譯述』, 86쪽.





보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⁶¹⁾. 容庚은 唐蘭의 설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⁶²⁾.

若은 從艸從又의 구조이다. 唐蘭은 說文이 이를 식물을 따는 것으로 풀이한 것은 詩經 芣苢편에 薄言有之의 ‘빨리 그것을 따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으로 여겼다. 이후에 若을 𠄎으로 오인하니 이는 若의 字音과 字義 모두를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容庚은 범례에서 「명문을 풀이할 때 간혹 여러 학자들의 고증을 채용한다.»⁶³⁾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예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결국 『金文編』은 金文 자형을 수록하고 있는 字書이지 考釋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注釋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凡例에서 차라리 이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8) 考釋

이하의 내용에서는 金文 字書에 수록된 몇몇 考釋의 字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王에 대한 許慎의 풀이는 정확하지 않으며 字書에는 다음과 같은 자형이 보인다.

『說文古籀補』	 <孟鼎>  <格仲尊>  <者鐘>
	 <姑馮句鐘>  <古鉢文>  <古鉢文>
『金文編』	 <戊甬鼎>  <越鼎>  <頌簋>  <陳章壺>

61) 吳大澂 『說文古籀補』, 卷六, 4쪽. 「華之茂者, 枝葉絳生, 春字從此, 後人以若爲𠄎, 非。」(꽃이 무성하고 가지와 잎이 자라는 것으로 春의 자형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후에 사람들이 若을 𠄎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62) 容庚 『金文編』, 卷一, 38쪽. 「若, 從艸從又, 唐蘭謂說文訓擇菜, 殆卽詩芣苢薄言有之, 之有後世誤若爲𠄎, 而若之音義俱晦。」
 63) 容庚 『金文編』, 凡例, 1쪽. 「審釋文字, 間採各家考證之說。」

吳大澂은 <孟鼎>의 자형에서 「大也, 盛也, 從二從山. 山古火字. 地中有火, 其氣盛也. 火盛曰王德盛, 亦曰王.」이라 하였다. 즉 王의 밑 부분은 火의 古文字로 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모양을 형상한 것이라 하였다. 이 밖에도 사람이 좌대에 앉아있는 모습, 또는 도기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 는 설 등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⁶⁴⁾. 다만 吳大澂의 설 역시 영향력 있는 해석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說文』에는 玉을 「象三玉之連, 丨貫貫也.」라 하여 여러 개의 옥이 꿰어져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 하였다.

『說文古籀補』	王 <毛公鼎>		
『金文編』	王 <鳥且癸簋>	王 <乙亥簋>	王 <穆公鼎>




吳大澂은 許慎의 설을 따라 「玉以一貫三玉, 象形.」이라고 정확히 자형을 풀이하였다. 또 다른 예로 『說文』에는 「皇(皇), 大也. 從自王.」이라 하였다.

『說文古籀補』	皇 <頌敦>	皇 <陳侯因資敦>	皇 <王孫鐘>
『金文編』	皇 <令簋>	皇 <作冊大鼎>	皇 <頌壺> 皇 <秦公簋>

吳大澂은 <頌敦>의 자형에서 「大也, 日出土則光大, 日爲君象, 故三皇稱皇.」이라 하여 해가 뜨면 대지가 광대해지므로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朱芳圃는 皇이 煌의 本字로 아래는 燈臺의 형상이며 위에 뿜어 나와 있는 모양은 등불이 비치는 모습이라 하였다⁶⁵⁾. 따라서 吳大澂이 이를 土와 日의 구조로 여기고 字義를 풀이한 것은 오류이다. 그리고 『說文』에는 「𡩇(天), 顛也. 至高無上, 從一大.」라 하였다.

64)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35-36쪽.

65)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37쪽.

『說文古籀補』	 <孟鼎>  <頌鼎>  <無其敦>
『金文編』	 <禾作父乙簋>  <大簋>  <頌壺>  <洹子孟姜壺>

吳大澂은 <孟鼎>의 자형을 근거로 「人所戴也, 天體圓, 故從●. 許氏說, 天大地大人亦大, 故大象人形。」라 하였는데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천체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從●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金文의 모양은 머리의 모양을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정수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從●의 구조는 후에 從一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자형의 일부만을 사람의 형상으로 풀이한 吳大澂의 설명은 오류이며 容庚이 말한 전체 사람을 형상한 「象人形」의 해석이 올바른 것이다. 이처럼 金文字書 중에 보이는 考釋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역시 존재한다. 이는 字書의 성격 상 자세한 풀이를 동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이러한 몇몇 오류로 인해 字書 전체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吳大澂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字說』이라는 문자 풀이 서적을 별도로 편찬하여 매 글자마다 자세한 考釋을 진행하였다.

4. 結 論

周代 이후 『史籀篇』을 비롯한 일부 초기 형태의 字書들이 등장했으나 이는 文字를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이를 본격적인 字書의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字書의 시작은 『說文』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이후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字書들이 『說文』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도 과언이 아니다. 漢代에 편찬된 『說文』은 시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金文을 字形 분석과 本義 해석에 적절히 이용하지는 못했다. 비록 重文의 형식으로 古文과 籀文을 수록했으나 이는 실제로는 戰國 문자로써 西周 金文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후 宋代는 清代와 더불어 중국 金文學 발전 역사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상당수 청동기 관련 연구의 기초가 당시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呂大臨이 편찬한 『考古圖釋文』의 출현은 본격적인 金文字書 탄생의 시초가 되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편찬 體例는 이후 金文字書에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異體 자형을 수록하는 것, 확정되지 않은 문자를 위해 별도의 附錄을 편찬한 것, 그리고 간단한 注釋을 더하는 등의 형식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후에 등장한 청대 吳大澂의 『說文古籀補』와 민국 이후 容庚의 『金文編』 등은 이를 계승한 대표적인 金文字書이며 『甲骨文編』과 같은 다른 영역의 고문자 字書 역시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字書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字形 수록집으로 여겨져 주로 異體 字形을 살피는 工具書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說文古籀補』와 『金文編』의 凡例와 字例 비교를 통하여 『說文』所無, 收錄字形, 合文, 孳乳, 異體字, 重文, 引用, 考釋의 8개 항목에 걸친 대표적인 體例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부 해석과 개념의 오류 또한 발견되지만 이는 字書가 단순히 字形을 수록하는 사료적 가치 이외에 文字學 연구서의 성격이 첨가된 학술서의 성격 또한 가진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만 향후 발전 방향이 전문적인 字形 수록서로 남을 것인지 혹은 이론서와 注釋書의 기능을 함께 겸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金文字書의 변천이 金文學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金文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인 銘文을 제공했다는 일차적인 사실 이외에도 역대 金文字書의 편찬자들이 凡例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 방대한 異體 자형을 분류하고 수록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金文學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宋代 이후 清代를 거쳐 지금까지 일반적인 金文學 연구는 주로 銘文 해석에 치중했다. 그러나 金文學은 종합 성격의 학문으로 여기에는 청동기 및 銘文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특히 金文字書는 그 중요성에 비해 더욱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金文學에서 字書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 가치와 영향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상적인 金文字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唐蘭『古文文字學導論』, 濟南:齊魯書社, 1981.
 容庚『金文編』, 北京:中華書局, 1985.
 呂大臨『考古圖釋文』, 北京:中華書局, 1987.
 吳大澂『說文古籀補』, 北京:中華書局, 1988.
 丁佛言『說文古籀補補』, 北京:中華書局, 1988.
 唐蘭『中國文字學』, 香港:太平書局, 1988.
 陳初生『金文常用字典』,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89.
 孫海波『甲骨文編』, 北京:中華書局, 1992.
 許慎著, 段玉裁注『說文解字注』, 臺北:書銘出版公司, 1992.
 李孝定『讀說文記』, 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92.
 方述鑫『甲骨金文字典』, 成都:巴蜀書社, 1993.
 徐中舒『甲骨文字典』, 成都:四川辭書出版社, 1993.
 裘錫圭『文字學概要』, 臺北:萬卷樓, 1994.
 張明華『中國古代字典詞典』, 臺灣:商務印書館, 1994.
 姚孝遂『中國文字學史』, 吉林:吉林教育出版社, 1995.
 吳大澂『字說』, 臺北:學海出版社, 1998.
 編輯部『簡明金文詞典』, 上海:上海辭書出版社, 1998.
 李恩江, 賈玉民『說文解字譯述』, 鄭州:中原農民出版社, 2000.
 이규갑『漢字學教程』, 서울: 차이나하우스, 2009.

❖ ABSTRACT

A Study of relation between transition of lexicon
and Bronze Epigraphy

Oh, Jae Jo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the Chinese Bronze Epigraphy has developed and how it has influenced the Chinese Academic field. The Chinese Bronze Epigraphy started from the Han dynasty, however it didn't reach the professional academic stage. After the Song Dynasty it started to be studied in full sca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start of the study of bronze was from the Song dynasty. In the Qing Dynasty, the study in Epigraphy was extended on again. *ShuoWenJieZi* that was written by *XuShen* in the Han Dynasty. *KaoGuTuShiWen* that was written by *LüDaLin* in the Song Dynasty. *ShuoWenGuZhouBu* that was written by *WuDaCheng* in the Qing Dynasty. *JinWenBian* that was written by *RongGeng* in the Republican era. This thesis examines the contents of *ShuoWenGuZhouBu* and *JinWenBian* and then synthe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cannot be denied that *ShuoWenJieZi* and *KaoGuTuShiWen* significantly affected the birth of *ShuoWenGuZhouBu* and *JinWenBian*.

Key Words

자서, 금문학, 설문해자, 고고도석문, 설문고주보, 금문편

Lexicon, Bronze Epigraphy, *ShuoWenJieZi*, *KaoGuTuShiWen*,
ShuoWenGuZhouBu, *JinWenBian*

논문접수일: 2011. 04. 20.

심사완료일: 2011. 05. 25.

게재확정일: 2011. 06. 10.